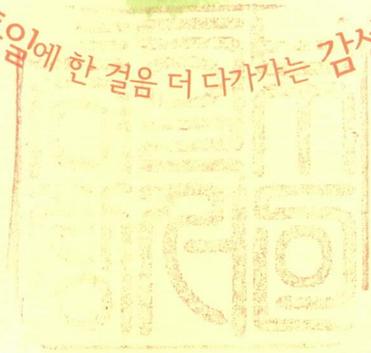


동행

글 |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각색·그림 | 호연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감성툰



책을 내며...

통일부가 더 많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8만 명이 넘는 공식 국문 페이스북 팬과 1만4천여 명에 이르는 트위터 팔로워를 확보하였고, 장·차관의 트위터 계정 개설, 인터넷 통일방송 및 각 실국별 SNS 채널 개설 등 양적인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소통’에서 규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중에서는 SNS의 팬이 많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콘텐츠’였습니다. 통일정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기에,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통일’을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아래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설명보다는 마음에 와 닿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로 웹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호연 작가와 함께 웹툰 <통통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정책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직원들 간의 소소한 일화를 버무리고, 호연 작가 특유의 감성을 엮은 <통통툰>이 SNS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9화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통통툰>을 SNS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로 출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통통툰>을 보고 가슴 속에 '통일의 꿈'을 간직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차례 ...

책을 내며 2

1화 • 통통툰의 탄생 6

2화 • 통일부 A to Z 9

3화 • 홍보과를 소개합니다! 15

4화 • 통일을 소망합니다 23

5화 • 2011년을 돌아보며 34

6화 • 2012년 통일부의 다짐 46

7화 • 실용정부 출범 4년 “대북정책, 이렇습니다” 60

8화 • 남북관계, 성과와 비화 66

9화 • 아듀! 상생기자단 4기 73



- 10화 • 통일의 꿈을 깨우세요! 83
- 11화 • 장관님의 통일항아리 제작기 92
- 12화 • 통일항아리에 모인 우리의 소원 98
- 13화 • 통일항아리 10문 10답 108
- 14화 •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1편 자전거 타고 하나로! 116
- 15화 •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2편 우리의 마음을 모아요! 132
- 16화 • 유니비우스 '온라인 통일토론' 153
- 17화 • 북한이탈주민 동아리를 방문하다 165
- 18화 • 한국과 독일의 이야기 분단의 흔적, 통일의 희망 181
- 19화 • 작가 후기 187

1화

통통툰의 탄생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안녕하세요



통일부의
귀염둥이,
통통툰입니다

앞으로 통일부
페이스북 <통통툰>을
통해 자주 뵙게
될거예요



동일부와 동일문제에 대해
보다 더 가깝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통품님~



동동툰을 그려주실
만화작가님을 섭외했어요!

이제 동일부 종이상자
안 쓰셔도 돼요!

저 소원은
민중동일~
인류평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그럼...



파아~



자자,
다들 이리로
모이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안녕하세요
그저나
땡이..



동일부의
야심찬 기대작!!!

바오
새우
뽕



뽕~뽕

뽕뽕뽕~!



2화

통일부 A to Z

여기는 정부청사





우리나라 헌법 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 정책 제안
1. <통통통> 열심히 보기!
2. <넌넌도> 잘 달기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준비하는 정부부처가 바로 "통일부"
입니다.



통일부는
동일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동시에.



행정 기관



덜컹하지만
 통일부의 마스코트는
 지켜야지
 안겠어요!



어?
 그거나 지금
 뭘보고 계세요?



'타오르는'
 통일부의 열정과 의지! ^{화끈함}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3화

홍보과를 소개합니다!

통일부 정책홍보과에는



온라인 홍보를 책임지는 5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첫째, 통일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지키는,
페북지기!



트위터를 관리하는 파랑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홍보과를 소개합니다!

둘째, 오후 1시면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방송지기!



매일 밤샘 편집으로 생긴 두꺼운 다크서클의 소유자!



셋째, 대학생 기자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블로거!



기자단에게는 차갑고 도도하지만, 블로그에만큼은 열정적인..



넷째, 영문 페이지를 관리하는 묘령의 여인,
캐저!



인동함이 매력!



다섯째, 미투데이를 수호하는
통곰이!



쇼핑백 마스크코트로 이미
명성을 떨쳤다.



우리 다섯이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과장님은 온라인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즈음엔 월요일 아침 '정책&이슈'의 '통일로 내일로' 코너에도 출연하고 계세요~!



앞으로 저희가 정책홍보과 사무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은 “통통툰”이니까요.

□ Epilog

가을이라 청사 근처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흐드러집니다.
점심시간이면 간단하게 경복궁 돌담길을 산책하며,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곤 하죠~!



그날도 식사 후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자꾸 밖에서 나는 은행냄새가 진동하지 뭐예요.



폐북지기는 영문 폐북지기 '캐쳐'에게서 은행냄새가 난다고 확신했습니다.



은행을 밟은 죄로 '캐쳐'는 사무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을 신발에 묻혀 온 사람은 '폐북지기'



폐북지기가 제일 고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디서나 피할 수 없는 '고된 사회생활'이여...

퇴근 후, 집에 가느라 전철을 타고 가는 폐복지기.
전철에서도 은행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코를 킁킁거리며 그제서야 '혹시 난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화

통일을 소망합니다







이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이 땅이, 내 조국이 냉전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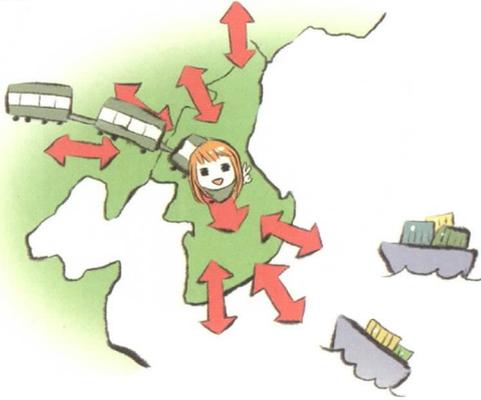
소모적인 외교전쟁이 사라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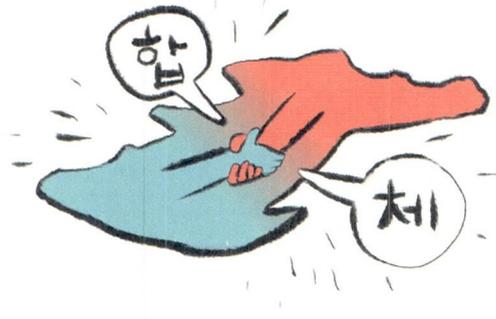
동북아의 불안정도 해결되지요.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두보가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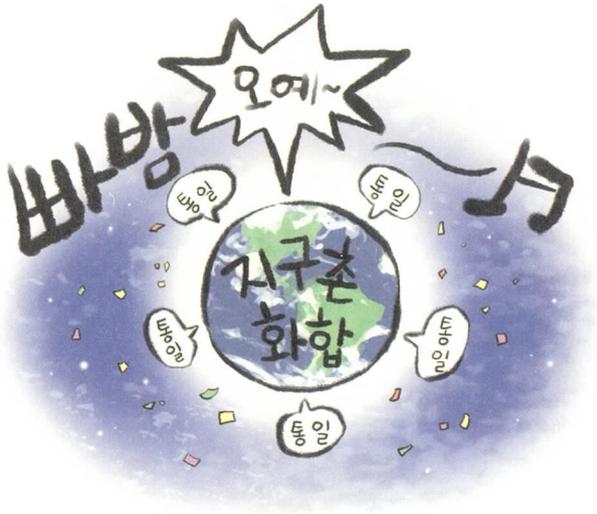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국의 통일은,



크게 지구 전체의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첫 종과 같은 셈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외국인이 찍은 북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았어요.



동영상에 나오는 북한의
건물과 도로는 낯설었지만



그곳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얼굴은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과 표정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치 제 몸의 절반이 뜯겨나가
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저와 우리 모두가



은전한 모습을 되찾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1년을 돌아보며



2011년은 동일부 SNS
5층사에게
정말 뜻깊은 해예요~



쫄쫄~
- 밤에 샴도 두 개나
- 반양귀요

사무실 에피소드
2회 만에 한해를
정리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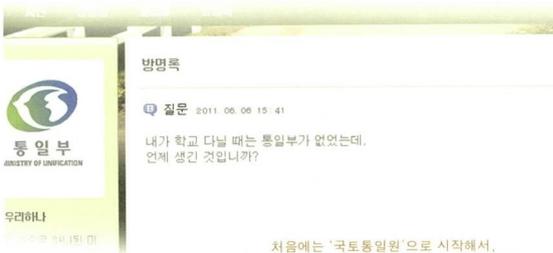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참 재밌었어요

<민원 처리하기>

전에 어떤분이 방명록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통일부가 없었는데,
언제 생긴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질문을 연달아 한 10개는
하신 것 같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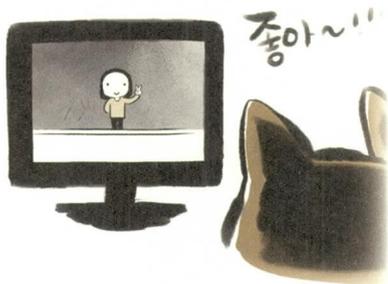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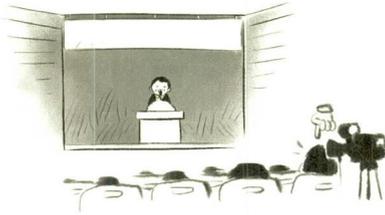
< 예상치 못한 일 >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김새는 때도 있죠...



중요한 행사 생중계를 해야 되어서
행사장에 일찍 도착해 미리 준비를 했지요





앞에 머리 큰 사람이 앉을 줄은 몰랐어...



< 서로 답아가요! >

SNS 라 서로 대화하다보니
답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미투데이를 하다보니까
제가 좀 더 신선(?)해진 것
같아요...



우리 통일부가 SNS 홍보로
연말에 상을 두 개나 받게 되었대네!





어... 음...



나님이 그렇게
이상하냐용...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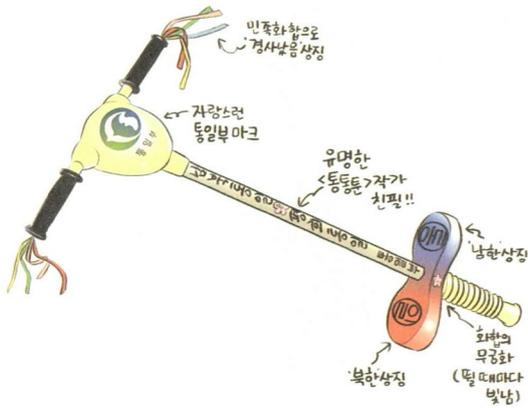
무얼 쓸지,
어떤 이벤트를 할지
같이 고민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지난 여름

'동동통 이벤트' 경품은
물론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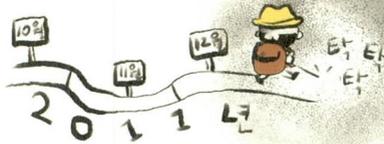




기각

< 끝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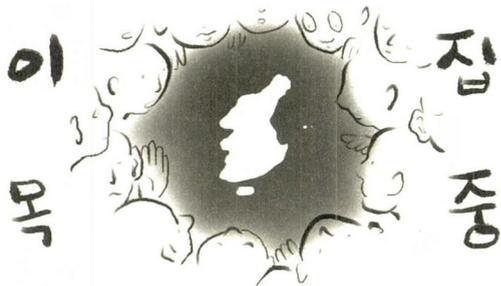
2011년의 막바지인 12월이군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 일이라고 하죠



12월 남북한의 상황도 한 치 앞도 모르게
하루하루 큰 변화들을 맞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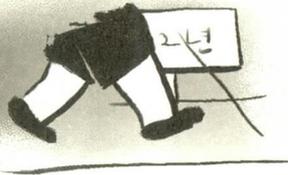
미래를 볼 순 없어요

하지만



미래를 '그릴 수'
있죠.

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그림은



항상 간절히 외쳐왔던
'평화' 그리고 '통일'입니다.



2012년 새해,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그림을
통일부와 함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관심이
동일부에 큰 힘이 됩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



6화

2012년 통일부의 다짐

나는 정부중앙청사 직원 김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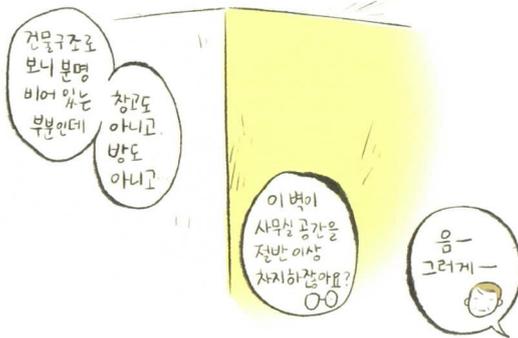


오늘도 국가와 국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요 ♡

그런데 한 가지 의문!



이곳 정부중앙청사 직원이 되면서
 줄곧 궁금했던 건데요...



나도 정부중앙청사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느날부터 저게 생겨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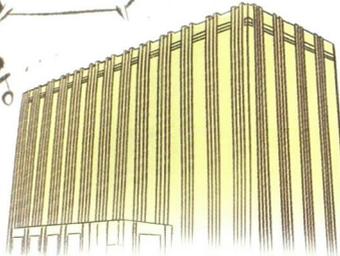


도대체
 경제가... 00?
 00?



2012년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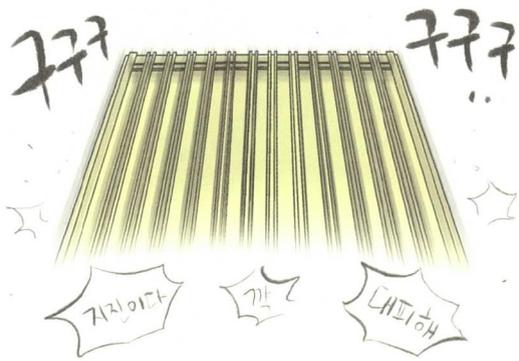
쿠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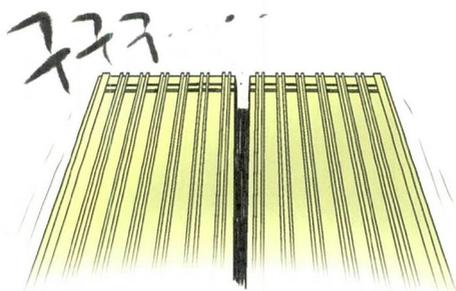




통일의 토대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평동적 통일정책을 위한 세 가지 목표!





구구구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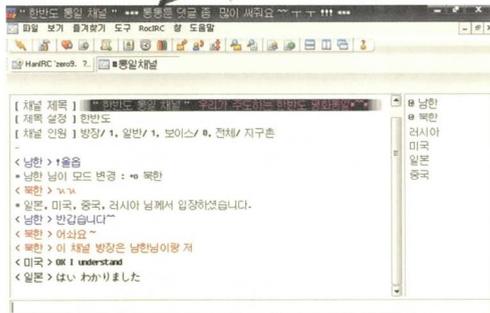
첫번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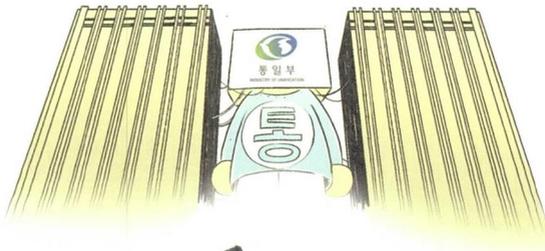


남북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남북간의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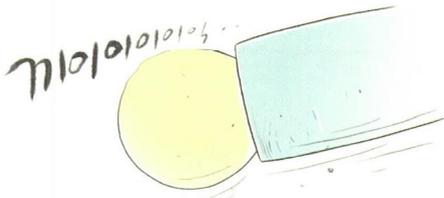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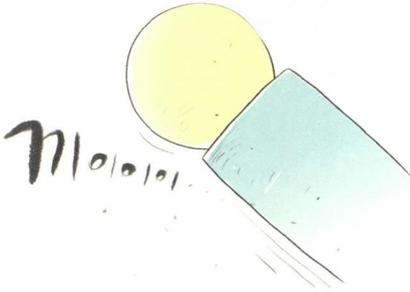
두번째,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인도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를 해결하며
취약계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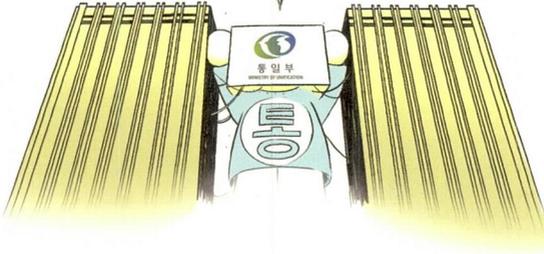
정치,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평화공동체 이루겠습니다!
북한 경제회복 지원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학술, 문화예술 교류 및 재난재해 돌기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집
윗집 -
사이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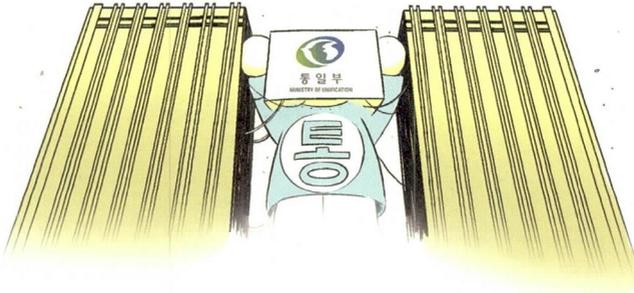


한 집
처럼 -♪
지내자

세번째,
실질적 통일미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크크크크... ㄱㄱㄱㄱㄱㄱ...



통일재원 마련과 국민적 통일외지 결집!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 통일외지 고양!!
 통일외교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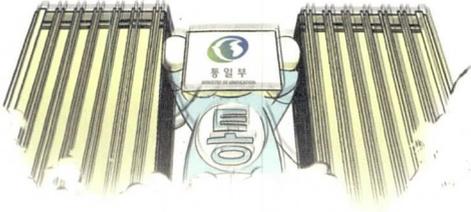
2012년 우리의 꿈



남이
 반드시...



고오오오오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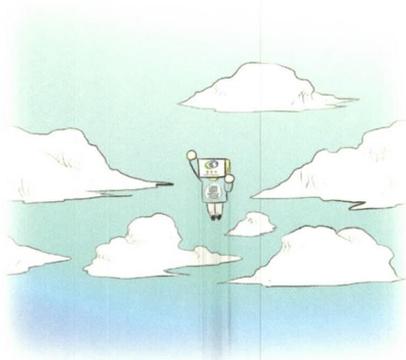
과장님,
팀팀의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동 완료!

좋아...

* 과장님









2012년
통일부 화이팅!!

7화

실용정부 출범 4년

"대북정책,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통통툰 진행을 맡은
동일부 정책홍보 과장입니다 -



실용정부출범4년.

동일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에 입각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북한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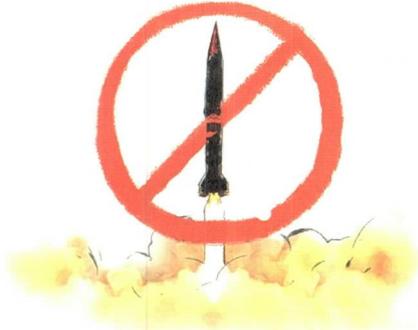
첫째,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후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셋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유지 등 남북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지켜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정식적, 비군사적 분야 민간교류등을 통해
남북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과거 정부 시기부터 추진해 온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시기 남북교류협력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흡했고,
해실형 등에 따른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라는 무력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에서 5.24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른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정부가 아무런 조치없이 남북경협과 대규모의 일방적 지원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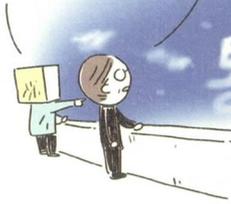
그러나 남북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추진하는 진통의 과정에서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고히 하였고 남북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관계가 시정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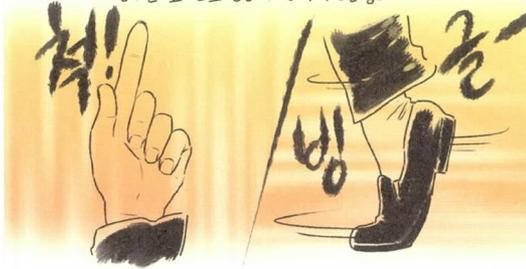
4년 동안 쉽지 않았지만,
많은 일을 해 왔군요—

그렇지..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 단계를 위한
초석 다지기라고 생각하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부는 앞으로도 능동적 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대래
준비를 위해



초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화

남북관계, 성과와 비화

그때 북측회담 대표가
갑자기 나가버려
얼마나 난감했는지...



북측의 일방적인 태도로
협약이 쉽지 않았지만...



폐북지기. 왜 그러는가?

그게... 요즘은 열심히 일하지만,
뭔가 성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지금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기간이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요!

재정립 남북관계

통일부

자
안!!!

통공이 많이 맞네!
게다가 그 안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



저는 원칙있는 회담문화론
정착시킨 것이 확실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아, 그때 그
적십자 회담 말인가요?

네!! 그때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죠!

2010년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3차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주제는 '추석 맞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였는데,
우리측은 그 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장소와 일정,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자는
우리측의 의견에 북측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남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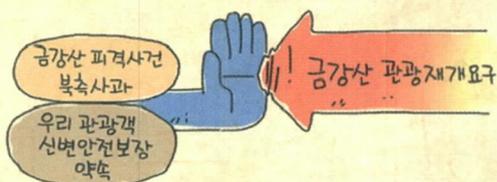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이산가족 상봉행사 활용요구
...

금강산 관광 재개요구
...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지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우리 관광객에 대한 선반안전 보장대책 및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재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일을 대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함을 복속에 알리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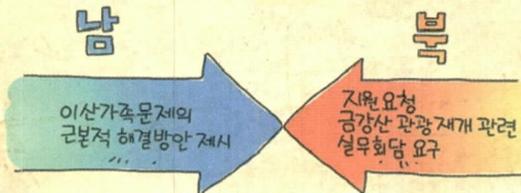


그리고 결국 인도주의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안과 연계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측은 적십자 실무접촉의 연장선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및 상시 상봉, 생사 주소 확인,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을 제차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사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강조하며,



북측의 경제적 실리화득 및 정치적 선전전략을 차단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의 윤치를 견지하였습니다

11월 25일 차기 적십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틀 전인 11월 23일 북측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때 회담이 잘 개최되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이끌어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네, 이산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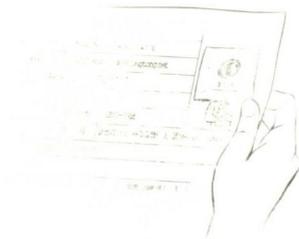


그럴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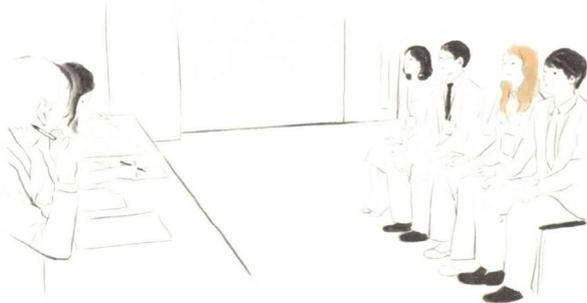


아듀! 상생기자단 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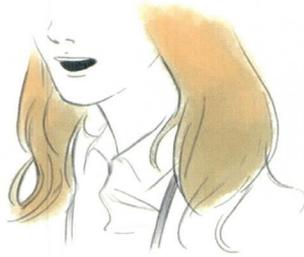
“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으로
수백 년이 지나게 되면 각각 다른 나라가 되겠지요.”



“저는
제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통일부 상생기자단을 지원한 이유입니다.”



각자 기사를 쓰는 기자단이라
 많은 수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런지 단체 활동들이 워낙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백령도로 갔던 안보 현장 체험 교육!

4시간이나 걸려 지루함을 못 이겨 잠만 잤던
 일출에서 백령도까지 갔던 여객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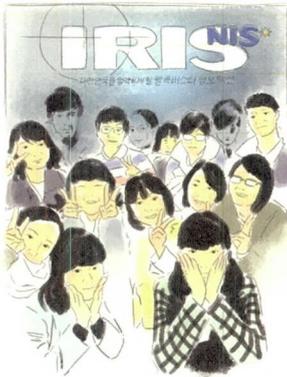


그래도 백령도에서 먹은회는
 태어나서 먹어본 회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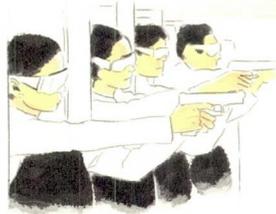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것 같았던
국정원 견학~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것 같았던!!
국정원 견학



특별에 아무도 가 볼 적이 없다보니
미지의 세계일 것 같았지만,
여기도 똑같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격훈련도 해보고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갔던
겨울 스키장 위크숍! □



기사를 쓰느라 고민 많았던
우리를 위한 통일부의
특별한 배려였지요 ^^ □



통일방송 유니라디오 클열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꽤어나서 처음으로 방송도 타고,
내가 쓴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일방송 유니라디오 출연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나 방송 타니까 꼭 들어!"라고
연락도 했지요!

예쁜 아나운서님과 잘생긴 방송지기,
PD님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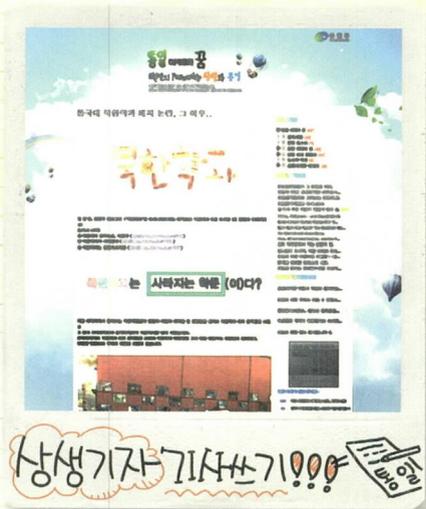
자극 클 열화나 나중에
고정 게스트를 시켜줄 때는
응답을 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모든 소중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쓴 기사로 푸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가
정말 뿌듯했습니다.



죽벌에 통일포케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나,
 너 기사를 읽는 누리경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너 기사에 키보드여 클 때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폐가 다니는 북한학과가
 폐과 위기에 처했을 때,
 꼭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지금껏
 통일미래의 꿈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고,

각종 언론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글이 일파만파 퍼져서
 반응과 신호를 통해 알려졌고,
 북한학과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결국 마음을 열었고,
 북한학과는 폐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너의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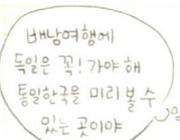


꼭 것보다도 값진 것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 막막했던 때가
 나중에는 꼭 것보다 나 자신의 기사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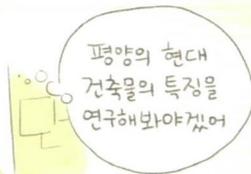
드라마를 보다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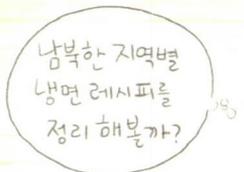
여행을 가도,



컬공 공부를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이렇게 점점 상상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기회의를 하던 매월 초 금요일 저녁 7시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로 기사를 어떻게 쓸지
머리를 짜매고 고민하던
회의도 늘 즐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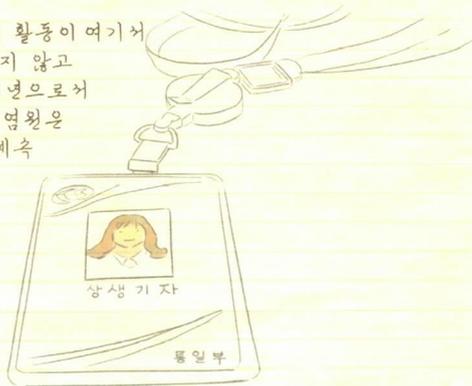
지방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 회의가 끝나고 다음 날 차 시간까지
남아 함께 뜨는 레를 보던 우리의 인연과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
.....
.....
.....



상생기재단 4기로서의 임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생기자의 활동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통일에 대한 뜻과 열원은
사회를 나가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통일부 여러분들과 상생기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통일부 상생기재단 4기 울림

“상생기자단 4기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그리울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기자단 5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 본받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1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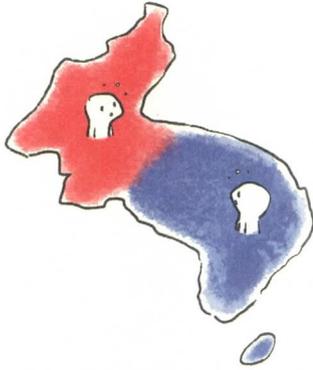
통일의 꿈을 깨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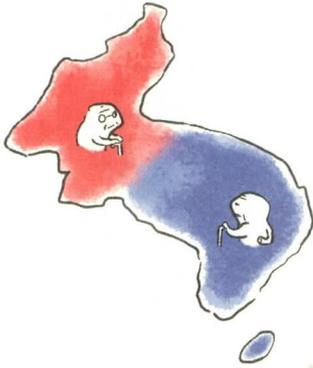


한반도가 분단된 지 올해로 67년이 지났습니다.

남북한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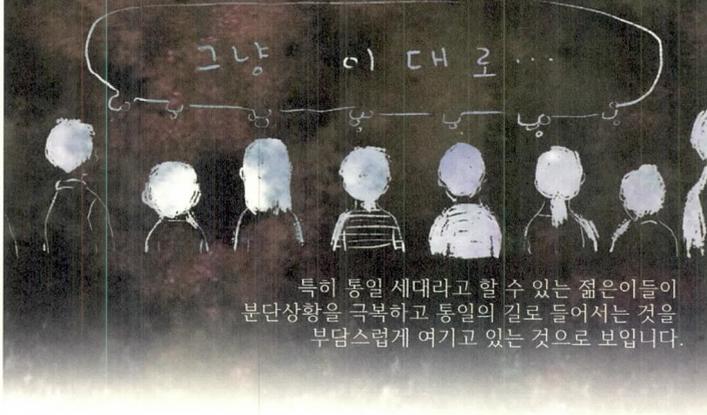
이러한 분단 상태가 오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며,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지만



우리의 활동공간과 정신적 지평은
 여전히 분단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고
시베리아를 건너고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에 이를 수 있다는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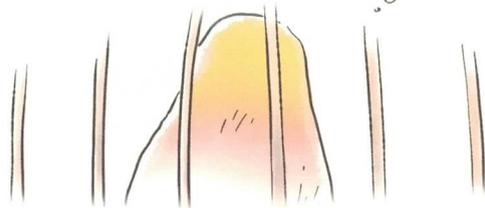


공간의 제약은 곧 정신의 제약이며,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는 족쇄인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불편하지 않다

통일은
오히려 환란을
야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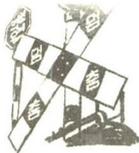
통일 이후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우려와 회피가 냉철하고 합리적인 인식인 양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제에 순응하고 충성할 것을 주장한 지식인들을
역사는 친일파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
분단으로 인해 치르고 있는 비용들.



분단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제약과 부담들.



그리고 그 아픔들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단 이재민들.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단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족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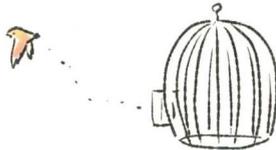
이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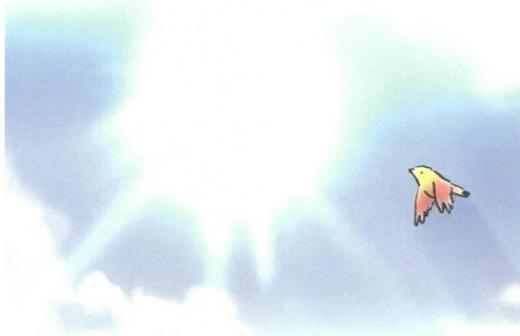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시대정신입니다.





단절된 국토를 통일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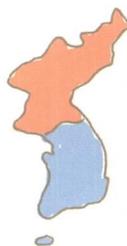
※ 위 내용은 '통일준비 대토론회(5.3)'시 류우의 통일부정관의 축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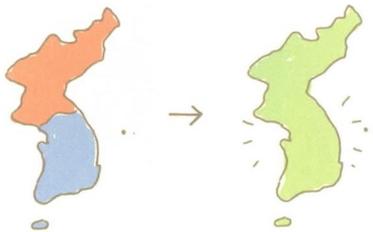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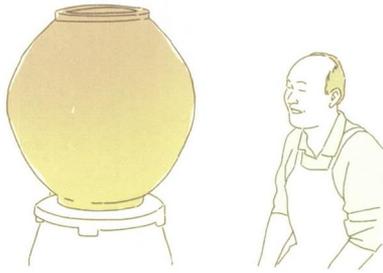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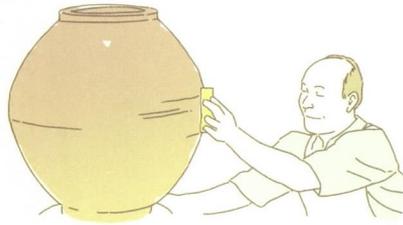
1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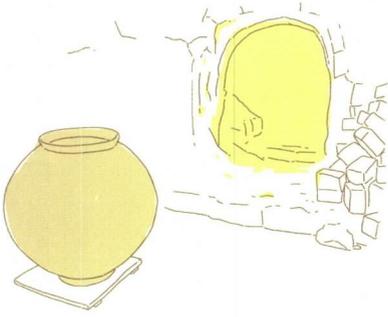
장관님의 통일항아리 제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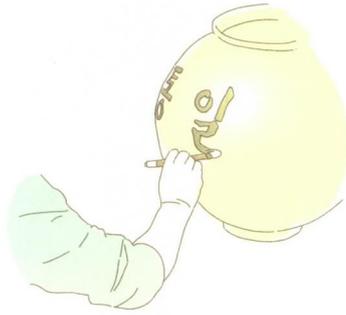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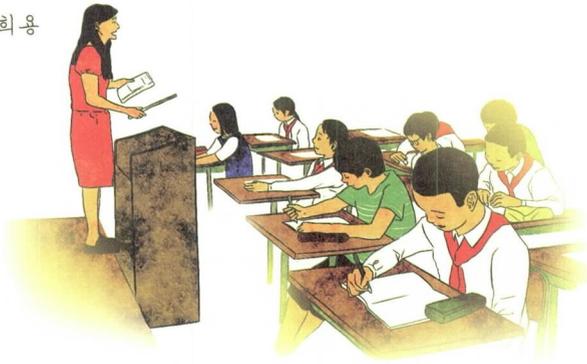


<평화통일 항아리>, 단기4345년
(2012년), 대한민국

통일항아리에 모인 우리의 소원

북한의 초등학교 소학교에서 수업을 한 번 해 보고 싶고
우리반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고 싶다.

김희용



나는 통일이 되면 북한남자와 소개팅을 하겠다!
남자 때 여자로서 서로 속이야기도 하며
달랐던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송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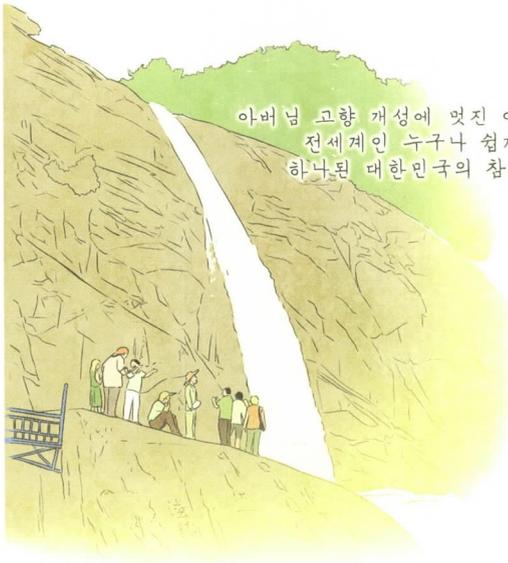
통일이 된다면 KTX 타고 평양냉면 먹으러 평양으로,
 함흥냉면 먹으러 함흥으로 직접
 맛집여행 하고 싶습니다.

우성수



아버님 고향 개성에 멋진 여행을 설립한 후
 전세계인 누구나 쉽게 방문하도록 하여
 하나된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

김영민



나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연백으로 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살았던 고향을 돌아보며 두고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드리고 싶어요.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정순옥



나는 통일이 되면 머전에서 백두산까지 걸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보고 싶다.
꿈에 그리던 백두산아, 너무 보고 싶어!

정효석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어지니까
죽기 전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금강산을 지나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다.

전지홍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한민족인데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살게 된 일로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정재화



세계 최초로 한리산에서 백두산까지
통일 국토대장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기영



통일 결혼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남남북녀 커플을 제가 맺어주고 싶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또 있을까 싶기에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이어주고픈 바람이 큼니다.

김은주



나는 통일 되면 입용고시 준비하겠다!
통일 되면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북한으로 가야 하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발 더 일찍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안창호

저는 통일이 되면,
함경도에 가서 북한 아이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열고 싶어요.
한글교실을 열어서 함께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즐기고 싶어요!

김다운

제주도 올레길처럼 북한의 멋진 올레길을 만들어
많은 사람 받게 하고 싶다!

김희정

북한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을지
북한의 변화기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을 위해
서울을 가이드 해주겠다.

장재순

김신비

통일이 되면 두만강으로 가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대어를 낚아 매운탕을 끓여먹겠다.

김수기

통일되면 평양에 가겠다!
지금은 남북이 나뉘어 있는 시점이라
북에 대해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들러,
대한민국의 근회와 역사를 알릴 것이다!

강민석

통일이 되면 개마고원에 스키장을 건설한다.

정수식

나는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 올라가 만세삼창을 부르겠다.

김우철

나는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 올라가 만세삼창을 부르겠다.

손은정

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내 할아버지의 고향땅에 가서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뿌려드리고 싶어요

고기환

나는 통일이 되면 두만강 푸른물을
한 마가지 떠서 시원하게 마시겠다.

박찬구

아이들에게 백두산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경진

통일되면 할머니 고향 황허목을 여형하고 싶어요.

양정인

나는 통일이 되면 내 가슴이 찢어질 때까지
북한 사람들을 꼭 껴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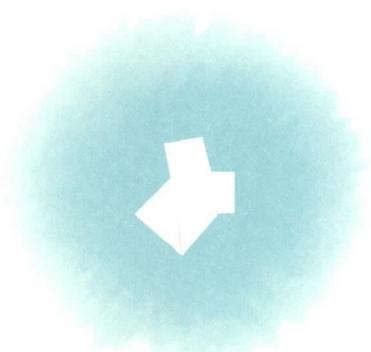
남정균





"흥~일, 흥~일, 흥~일, 흥~일, 아~ 흥일이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면, 흥일 안 되겠어요?
 저희,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노홍철





통일의 꿈!

이제 통일 향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통일향아리 응원서명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unijar.kr>



통일항아리 10문 10답

1. '통일 항아리'가 뭔가요?



항아리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살림살이 중 하나였습니다.

간장, 된장 같은 음식뿐만 아니라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넣어두는 보물창고로도 쓰였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마다 쌀 한 줌씩을 항아리에 덜어 보관하여,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긴하게 쓸 든든한 밑천을 마련한 것이지요.



이런 어머니의 지혜를 본받아 다가올 통일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 통일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자는 취지이고, 이러한 통일준비의 상징이 통일항아리입니다.



통일항아리에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결집되어 나간다면
 젊은 미래세대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가들에게
 우리통일의 의지를
 알려서,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수있을것
 입니다*^^*

2.

통일항아리에 응원서명 하면 반드시 돈을 내야 하나요?

통일항아리 응원서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준비에 필요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항아리 응원서명은 통일과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의지 결집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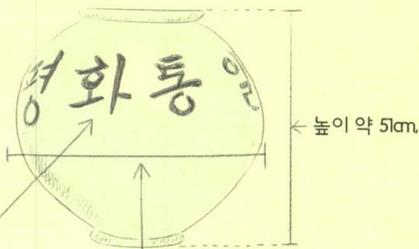


3. '통일 향아리'는 어떻게 제작되었나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문경 영남요를 방문하여 중요 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백산 김정옥 선생과 함께 통일향아리를 제작해 왔으며, 6월 23일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통일향아리는
남과 북을 의미하는
상 하 모양 만들기,
붙이기, 유약 바르기,
가마 굽기 등을 통해



몸통지름 약 50cm의
달향아리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류우익 장관이 직접 향아리에
'평화통일'이라는 글씨를 새겼습니다.



평화통일.

4. 통일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국내의 연구기관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
△소득수준격차,
△비용지출기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2011년 통일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 직후 1년간 통일비용은
최소 55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통일된 이후의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클 것이지만
통일초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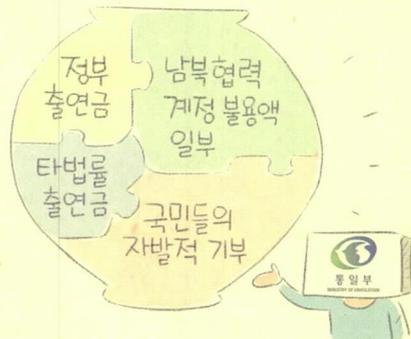


조금씩
모아가지

그러나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항아리에 통일재원을 조금씩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5. '통일 향아리'(통일재원 마련)는 어떻게 채워나갈 계획인가요?

정부는 정부출연금, 남북협력계정 불용액 일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출연금 등 적립을 통해 통일향아리를 채워가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통일향아리 기부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6. 통일재원(통일향아리) 법제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통일재원(통일향아리) 법제화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일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 직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한반도의 안정적 통일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통일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통일계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 남북협력기금법 상의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법 개정을 통해 통일계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통일계정

'남북협력계정'은 통일 이전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게 되고, '통일계정'은 통일 이후에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 재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7.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세'를 걷나요?

통일향아리는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의지를 결집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향아리 사업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함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통일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8. 통일재원 마련에 동참하고 싶은데 얼마를 내면 될까요?

딱히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액수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에서
 민간차원의 통일재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www.unihopekr.com, www.통일생각.kr

9. 통일계정에 모아진 통일재원은 통일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일계정에 모아진 재원은 통일 이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일 이전 남북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남북협력계정에서 지원하게 되고,



10. 통일계정에 재원을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요?

통일계정에 적립된 재원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계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일종의 貸與할 경우
예탁기간 동안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입들은 통일계정에 다시 적립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Unijar.kr

통일 항아리 홈페이지에서
많은 응원 바랍니다.^^

14화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1편 자전거 타고 하나로!

7박 8일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라이딩

주최 통일포럼 (사회통합실국)
주최 통일포럼 (사회통합실국)
주최 통일포럼 (사회통합실국)

준비된 통일은 후복입니다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www.unijar.kr

은 국민의 통일 염원을 '통일항아리'에
같이 위한 자전거 국토대장정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1	김민준	남	1990.01.15	학생	서울시 강남구
2	이준호	남	1985.03.22	회사원	부산광역시
3	박지민	여	1992.05.10	학생	대구광역시
4	정민준	남	1988.07.08	회사원	대전광역시
5	최민준	남	1995.02.28	학생	충청남도
6	한민준	남	1991.04.12	학생	경상북도
7	김민준	남	1993.06.05	학생	경상남도
8	이민준	남	1994.08.18	학생	경기도
9	정민준	남	1996.10.01	학생	충청북도
10	최민준	남	1997.11.20	학생	경상북도

총 거리 400Km



통일부 직원 11명
상생기자단 3명
자전거 전문가, 안전요원 6명



하루 평균
약 50km의 거리



전국 12개 주요도시 순회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누빈다.”

이 사실이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고,
이번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에 참석한
이유였습니다.



통일향아리
국토대장정
라이딩의
시작!



이번 라이딩을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무조건 완주(完走)'였습니다.



내 도전이 무모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포기하라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7박 8일간의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날짜	구간	출정식	지역 참가
9.13(목)	대전-전주	엑스포 시민광장	100여명
9.14(금)	전주-광주	전주시청 광장	50여명
9.15(토)	창원-부산	창원시청 광장	50여명
9.16(일)	부산-대구	대저생태공원	50여명
9.17(월)	삼척-강릉	태풍 '상반'로 인해 자전거 라이딩 취소 드림팀원 김원태 삼척 헬퍼스에서 서명운동	
9.18(화)	춘천-양평	춘천시청	50여명
9.19(수)	양평-서울	양평군청	70여명
9.20(목)	서울-파주	여의도 불빛무대	100여명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을 하며 하나 깨달은 점!

저는 이번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을 하며 자전거에서
어떠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속박입니다

앗,
내얼굴~



국민의 통일의를 결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통일이지 결집만으로는
바퀴 하나뿐인 자전거에 지나지 않죠.



2011년에 통일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 직후
1년간 통일비용은 최소 55조 원으로
추계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나머지 뒷바퀴에 해당된다고 느꼈습니다.



‘통일 의지’에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준비가 병행된다면
남북통일의 현실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겁니다.



본격적인 라이딩편



태풍이 드림팀을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드림팀이 태풍을 따라가는 것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행사 일정이
비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라이딩 구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로 첫째 날,
대전에서 전주 구간!



아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자전거 라이딩의 첫 일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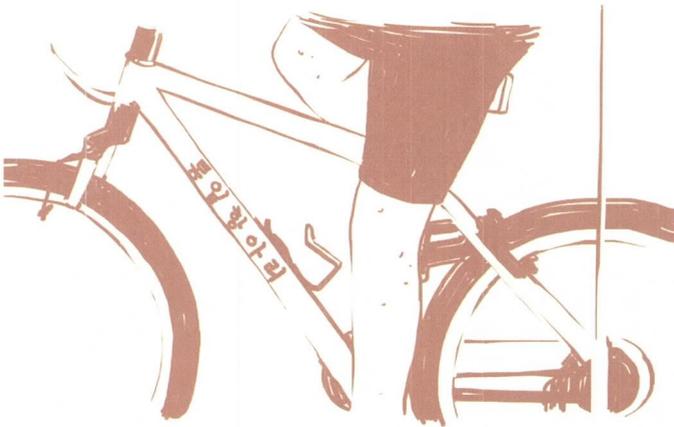
헬멧과 고글도 모자라
우비와 방수 모자로 완전무장을 한 채 시작한 라이딩,
멈추길 바랐던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급기야 시야를 모두 가리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고글에 달아 놓고 싶은 심상이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선두를 믿고,
 팀원을 믿고 곳곳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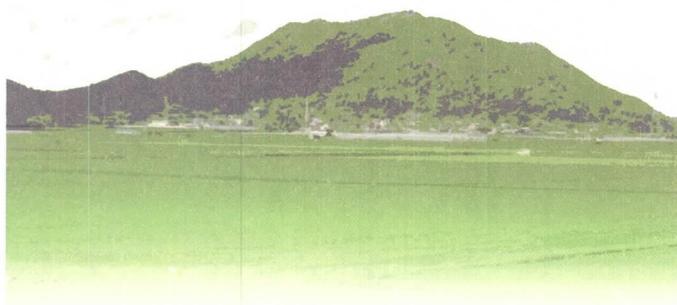


자전거 국토대장정 구간에는
 경사가 완만한 오르막길,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
 내리막길, 비교적 평탄한 길 등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지 같으나 살짝이라도
 경사가 있는 길을 갈 때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사람들을 한 번씩 둘러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지도 나옵니다.



라이딩 기간 중 최대의 고비



죽을 것 같다 포기할까?

이제 다 왔어!



응지!

잘한다!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내 힘으로만 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체력이 점차 고갈되면서

'아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쓰러져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유난히 피로감을 호소하는 팀원이 많았습니다.



전주에서 광주로 가는 구간,
전남대학교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지역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드림팀의 행렬을 바라보며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광주지역민들의 응원은 피로회복제와도 같았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15화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2편
우리의 마음을 모아요!



서명팀은 약천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재원마련 응원카드에
통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적어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글귀,
짧지만 강한 통일의 메시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파이팅!’
이었습니다^^

흡사 눈술담안을 보는 것 같은
길고 논리적인 통일 응원 메시지도 줄을 이었습니다.

통일함안군에게 당신의 마음을 달아주세요

동일함안군을 응원합니다

이름 _____

E-mail _____

연희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2986 2987 2988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3057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3068 3069 3070 3071 3072 3073 3074 3075 3076 3077 3078 3079 3080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3088 3089 3090 3091 3092 3093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 3100 3101 3102 3103 3104 3105 3106 3107 3108 3109 3110 3111 3112 3113 3114 3115 3116 3117 3118 3119 3120 3121 3122 3123 3124 3125 3126 <

태풍이 심하게 몰아치던 라이딩 중반



안전문제로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팀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직접 발로 뛰며
국민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글쎄요. 통일되면 선진국으로 간다는데,
그만큼 행복해지는 건가요?”

통일 = 행복?

“통일이 되면 세금 더 내야 하잖아요.
당장에 취업하기도 힘든데 통일하자는 이야기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네요.”



“서명한다고 통일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 없어요.”



생각보다 통일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일부가 있는지 되묻는 국민까지 만나보면서
생각보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취업과 스펙을 고민한다는 한 청년은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바가 없다면,
 통일이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단 그 청년만의 생각이 아닌 많은 청년,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통일이 당장 취업을 시켜주진 않아요.
 하지만 분단을 겪으면서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비오는 날에도
 푸른 재복을 입고
 북쪽을 바라보며
 총을 겨누고 있고,

대북 관련 뉴스와 주가

주요 내용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2002. 12. 23 북한 핵 불인 제거	-2.55
2003. 1. 9 북핵 관련 중재안 거부	-3.27
2003. 4. 25 북 핵보유 시인 및 '자화단' 출몰	-3.69
2003. 4. 25 북 핵보유 시인 및 '자화단' 출몰	-4.91

경제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영되어 더 높은
 성장이 어렵지요.

대장정의 마지막날



드디어 9월 20일, 대장정의 마지막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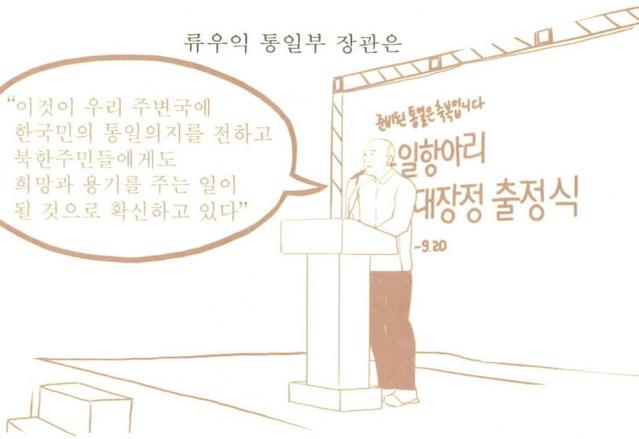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인터넷통일방송
이영이 아나운서의 사회로 특별한 출정식이 열렸는데요.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상벽 씨, 야구해설자 양준혁 씨, 가수 김범수 씨,
남북합작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뽀로로가 함께 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것이 우리 주변국에
한국민의 통일 의지를 전하고
북한주민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방송인 이상벽 씨는

“실항민으로 서러운 세월을 살아왔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만큼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의 종착점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체력이 고갈돼 지칠 대로 지친 상태
드림팀원들은 앞에서 기다려 주고,
뒤에서 끌어주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한 드림팀은 “만세!”를 외쳤는데요,
서로를 믿고 달린 결과가 완주라는 결실을 가져다주었음을
확인하며 감격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개성과 평양에 다다를 수 있다는
표지판을 바라볼 때에는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개성으로 가는 화살표에 X자가 쳐진 것을 확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국토의 절반만을 달려왔지만,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가 타고 달린
삼천리 자전거의 이름처럼 삼천리까지 달려 진정한 의미의
전국 국토대장정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 정찬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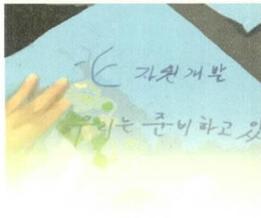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하이라이트 행사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드림팀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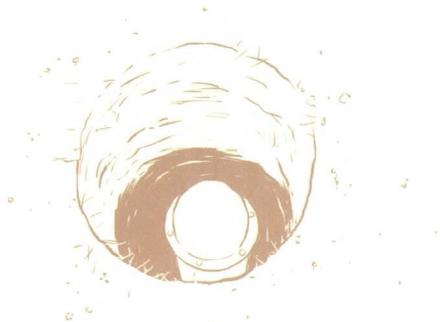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깃발에
우리의 통일을 향한 염원을 고이 적었습니다.



깃발은 타임캡슐에 담아
남북출입국사무소 한 칸에 물었습니다.



머지않아 남북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날,
오늘을 추억하며 타임캡슐을 열어보자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평화통일의 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할 거라고 우려했던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했고, 해냈습니다.



비와 태풍으로 험난했던 고비,
끝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반복....



지난 남북관계를 돌아보니



자전거 국토대장정
코스처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평지를
반복해 왔더군요.

여기서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자전거 국토대장정 코스와 참 닮아 있구나!'



우리는 수 차례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통과하면서,



통일은
개인의 완주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하는 완주임을 알았습니다.

남북의 통일,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격려,



팀원 전체의
단합과 조화,

완주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7박 8일의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처럼요.

남북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우리민족의 숙명적 책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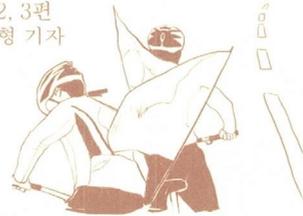
하루빨리 북녘 땅까지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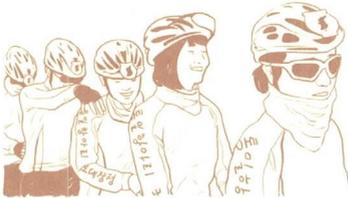


* 참고자료

제5기 상생기자단 기사문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1, 2, 3편
김열림, 강인경, 이진희, 정찬형 기자
<http://blog.unikorea.go.kr>



통일부 자전거 국토대장정 배성은님 후기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 자료조사

통일부 홍보팀
허은실, 김기현님



* 편집/연출/그림

호연 Hoyeon 2012.



16화

유니커우스

'온라인 통일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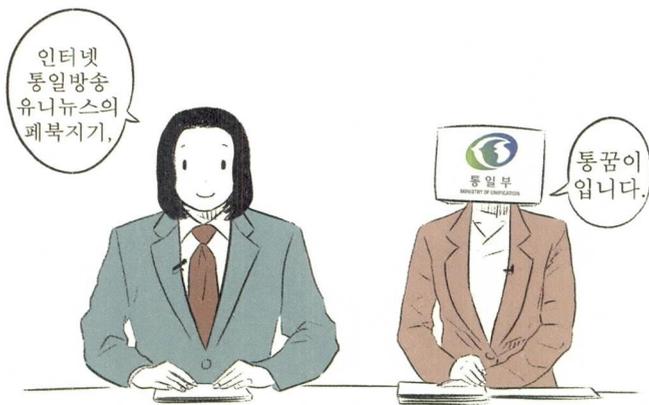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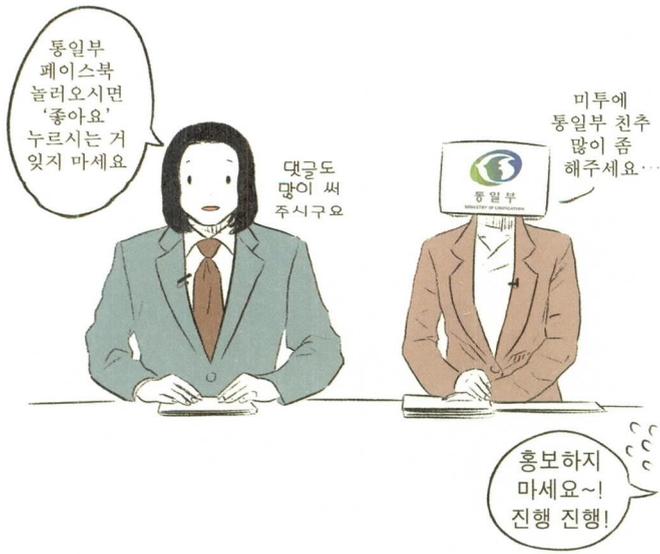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인터넷
통일방송
유니뉴스의
폐북지기,

통꿈이
입니다.



통일부
페이스북
늘려오시면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댓글도
많이 써
주시구요

미투에
통일부 권추
많이 좀
해주세요...

홍보하지
마세요~!
진행 진행!

통일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통일 토론포럼>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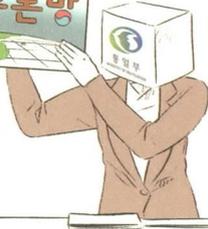


총 3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토론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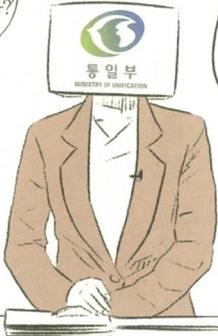
네,
 통일 토론방은
 3회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 유연화 조치 확대 유보'에 관해
 의견을 묻는 토론이 5.29일부터
 6.2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질문이 '당신은
통일항아리에
무엇을 넣겠습니까?'
인 만큼,



참여해주신
분들의 개성을
볼 수 있어
재미있는 토론
이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의 교육을 담겠다'
는 답변을,



부모님이신 분들은
'아이들의 희망'을 담겠다는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랑'과 '간절함'을 담겠다는
따뜻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도
아까 답변을
조급 했는데요.
'초강력 본드'를
넣겠다는 의견이
참 재미있었어요.

통일이
되면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게
초강력 본드로
꼭 붙이고 싶다는
재치있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삶은 달걀'을
넣겠다는 의견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기본적인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일을 이루는 데에
난관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마 참여자분이
실향민이거나
이산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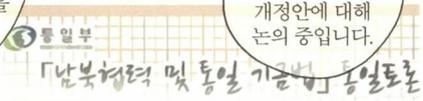
마지막 세 번째 토론 주제는 뭐였죠?

세 번째 토론 주제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었는데요.



어! 저 이거 알아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법>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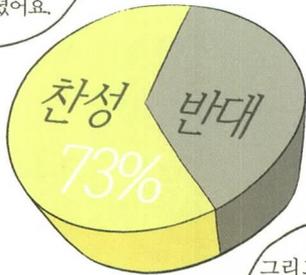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통일항아리'도 이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상징이구요.

정부,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장' 신설 추진

등록된 의견이
총 200여 건으로 진행했던
토론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등록되었습니다.



의견 중 73%가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권 판매안,
기부금, 1대1 결연 등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의 토론 모두
뜻깊은 내용으로
활발히 잘 진행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구요.
기쁩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일토론은 앞으로도
꾸욱~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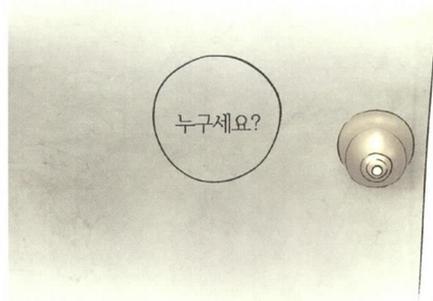


1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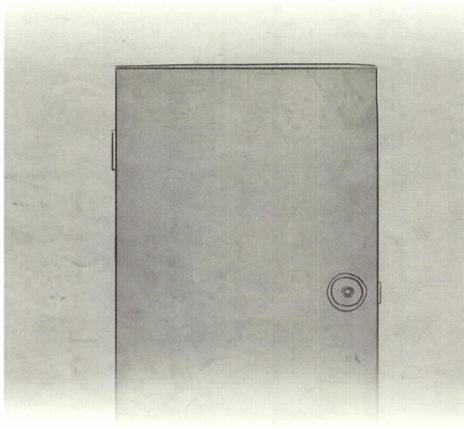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동아리를 방문하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입니다.





어? 근데 남한분이시냐 봐요. 말투를 보니..



그래요?

네.
처음에는
교내에서
이슈화되고
그렇까봐
숨겼는데.



회원들끼리
상의해본 결과
함께 어우러
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저.. 그럼 인터뷰 시작할게요. 어떤 계기로 탈북하셨어요?

아버지께서
11년간
정치범 수용소에
감혀 계셨어요.



가세도 기울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정말 힘들었겠네요. 대학은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북한에서는 대학이
여기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대학생활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고,
제가 나온 한겨레학교
학력만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대학진학을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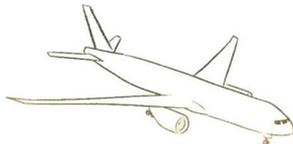
남한에 들어와서 가장 기쁜 점과 힘든 점을 말해주세요.

자유를 얻었다는 게
가장 기뻐요.

제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릴 때 느꼈던,



그 때의 희열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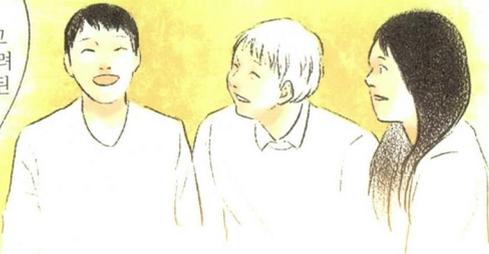


반면에,
북한 출신이라
차별대우 받을 때는
힘들었어요.

처음에 말투도
숨기기 힘들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위축되더라구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자신감 있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밝혔어요. 그게 오히려
친구들과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동아리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동아리의 설립 목적은 무엇가요?

우리 동아리는
우선 탈북학생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이
부모나 친인척 없이
홀로 정착생활을
하고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봉사활동이에요.
북한 이탈주민 가정 청소,
유치원생 인솔,

양로원 방문,
교내 정화활동,
신입 탈북학생
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탈북학생들이 주변에 친인척이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단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미안하고 민망하네요.

앞으로
탈북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편견 갖지 말고
잘 어울려 주세요.



대학 졸업 후 계획은 뭐가요? 사회에 진출하는 데 부담감은 없으세요?

제 꿈의 반은
통일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사실, 사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주변에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는 면접도
보기 힘들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들도 종종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취업했다는
이야기도 하구요.

한 선배가 취업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는데,
간신히 보게 된 면접에서-



어느 회사나 수습기간이
있지 않나요? 저를 한번
써보고 난 뒤에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취업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그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남한사람들에게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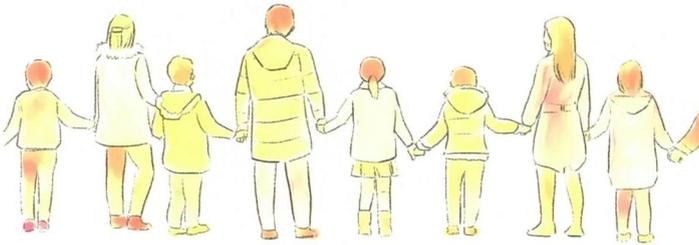
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이 참 중요한 문제인 거 같은데,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뭘요~
다음에 또
인터뷰 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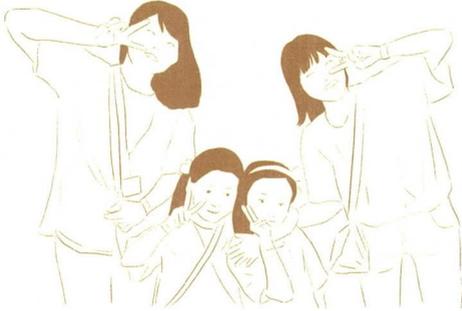
하하.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안 그래도
하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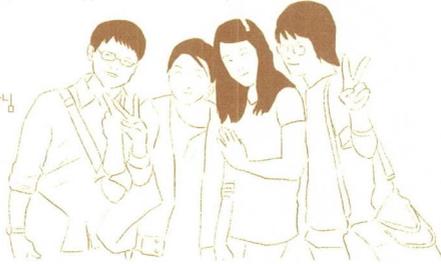
이번 주말에
탈북 어린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와! 좋아요!



• 스토리
 통일부 유튜브 채널 **어은서니**
 유은님 윤영님 안은님

• 자문 및 협조
 통일부 상생기자단 이지혜, 안준영 기자님



• 퍼지/어촌/그림
 안은님 윤영님
 오영님



한국과 독일의 이야기

분단의 흔적, 통일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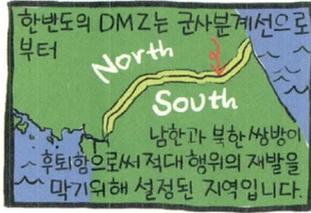
독일의 DMZ를 찾아서...



독일, 라인란드 DMZ의 히스토리~



우리나라, 한반도의 DMZ 히스토리



분단선 - 찰리 검문소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나뉘었을 당시 서베를린을 관할했던 연합군은 몇개의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브라보 검문소 알파 검문소 찰리 검문소

그 가운데 제3검문소인 찰리검문소는 1990년까지 비(非) 독일인의 동서독간 주요 통로였습니다.

찰리검문소는 1990년 폐쇄된 후 2001년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미국인 배우 사건

찰리검문소 박물관

옆에는 찰리검문소 박물관이 있어

요렇게 들어맞추~

1인 감수함, 자동차 트렁크, 탈출용 가방 등 각종 탈출방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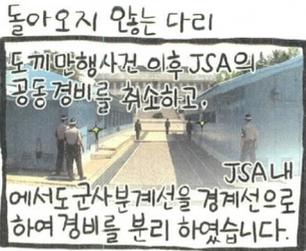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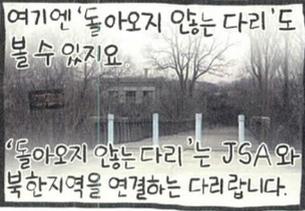
검문소 앞에는 베를린 전역을 볼수 있는 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열기구를 이용해 동독·탈출이 성공할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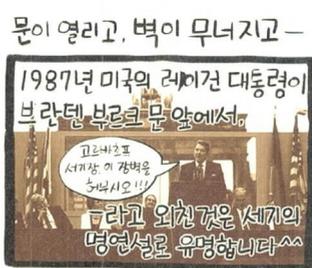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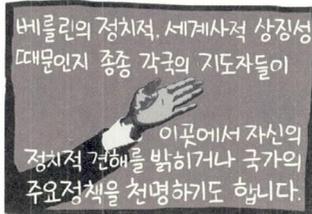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판문점 일부구역 등을

관광할수 있습니다.

What was DMZ having?



동일과 화합의 상징.
브란덴부르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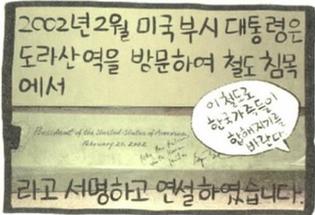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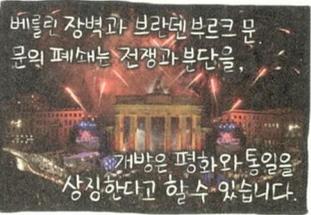




언젠가는 달려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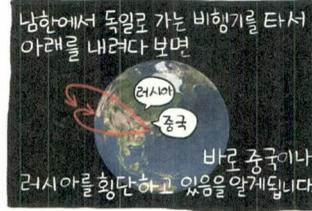
한국과 베를린의 관계



어느날 갑자기!



모두가 하나로 ^^



작가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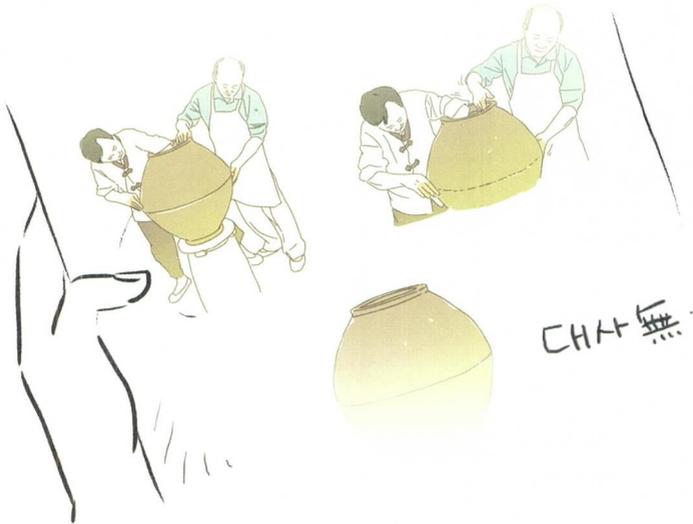


그.그.그!
이렇게 쓰면
재미있겠다!

드득 드득
쓰는
하하하
키히히...

시트콤 스타일
시나리오의 달인
허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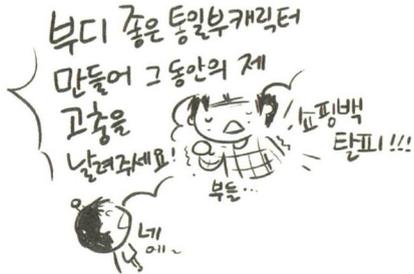
만화완성 -



죄송해요
 또그리다보니
 | 잔잔한 스타일로...



똥똥 처음 구상할 때...



동일은 그리고 싶다!

저 후연작가는 동일부와 만나기
몇달 전, 자전적인 웹툰
《사금인기》를 출판용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 《사금인기》
마지막 컷툰
내용

동일



다행이다! 빨리 발견해서!

1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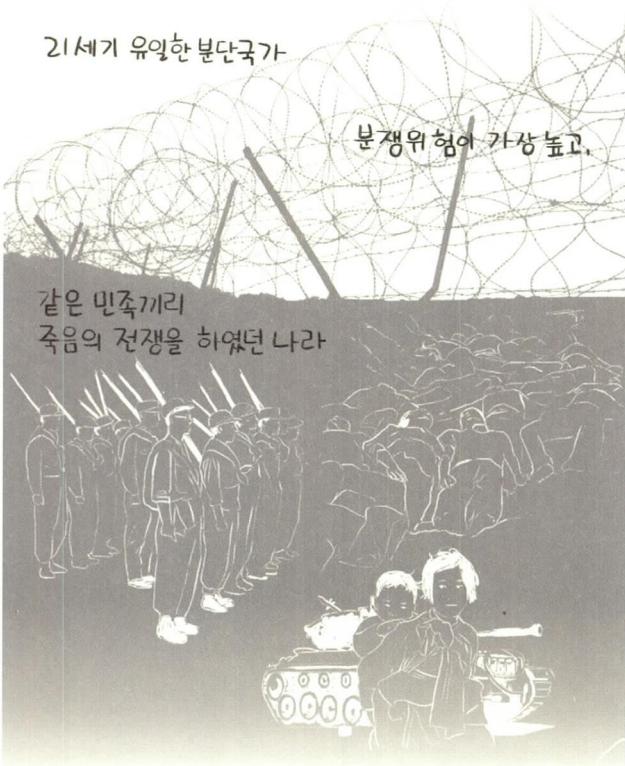
그런데 후에
통일부에서 통일만화제약이 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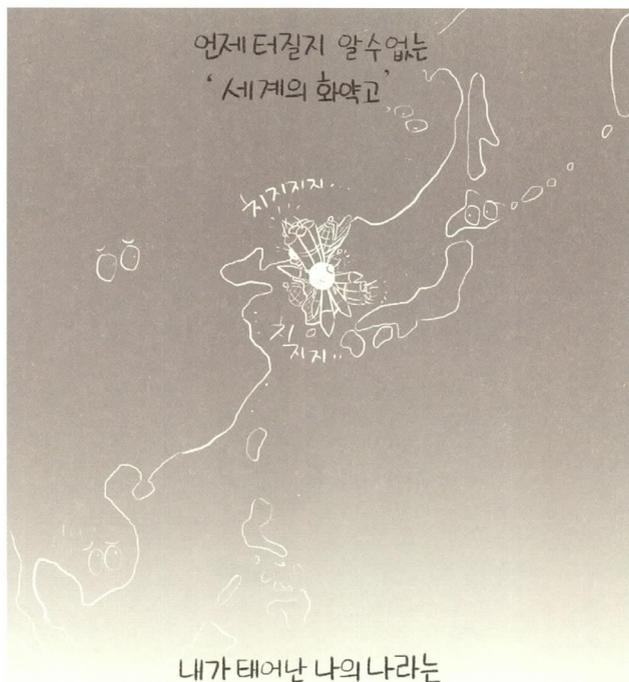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

분쟁위험이 가상 높고.

같은 민족끼리
죽음의 전쟁을 하였던 나라





내가 태어난 나의 나라는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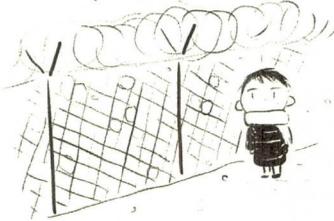
너무나 많은
전쟁과 상처를 겪어왔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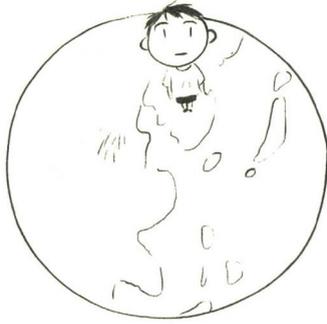
20세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직도 팽배하고



냉전체제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나라...



누가 나를 이 넓은 우주,
그 중에서도 지구별에,
많은 나라 중 이 대한민국이란 곳에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나라와
이 곳의 사람들이 무척 좋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성격, 환경, 철학과 기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하나같이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의심과 미움, 적대감, 분노...
 이런 감정들로 만연하지만



그 이견에 상대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있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믿음은

한없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우리 안의 순수성,

믿음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나의 나라가 이룬 통일은

기후 성공을

이데올로기의 벽도
넘게 될 것이고.

그 후

증오와 아픔의 역사 넘어,

1인종제기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인류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라.



우리의 건국이념과 같이
널리 사랑을 이롭게 하는 나라



그 나라는 김구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나는, 우리는 그 꿈이 있어

이 아름다운 나라, 세계 마지막 분단국에
태어난 것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나의 나라,
나와 함께 숨쉬는 동포들을 위해,
21세기 민족통일의 꿈에
항상 함께 뛰겠습니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 민족통일
현~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감성툰



인쇄일 2013년 1월

발행일 2013년 1월

발행처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27

디자인·제작 (주)한문화멀티미디어 (전화 02-2016-3500)